내국인 출입 찬성

1.사드 이후로 카지노들의 주 고객원인 중국인들의 방문이 감소

2017 9월 21일자 뉴스

21일 한국카지노업관광협회에 따르면 육지지역 카지노 매출과 입장객은 지난해 1조996억 원과 214만 명에서 올 8월까지 6487억 원과 131만여 명으로 매출 22%, 입장객은 33%감소했다.  
  
또 제주지역 8개 카지노의 경우 같은 기간 1760억 원과 21만여 명에서 1008억 원, 10만 여명으로 역시 같은 기간 33%, 50%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8 3월 21일자 뉴스

파라다이스의 전체 외국인 VIP 고객 중 중국인 비중은 2016년 45%에서 작년 35%로 무려 10%포인트 낮아졌다.  
  
다른 외국인 전용 카지노인 그랜드코리아레저(GKL)도 사드보복을 피해갈 수는 없었다.  
  
GKL의 지난해 매출은 전년보다 8.6% 줄어든 5천12억9천600만원에 머물렀다.  
  
잠정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은 전년보다 28.5%와 29.6% 감소한 1천81억6천900만원과 805억3천900만원에 그쳤다.   
  
GKL의 지난해 전체 입장객 120만명 가운데 중국인 비중은 44.4%에 그쳤다. 2016년 중국인 비중은 이보다 5.4%포인트 높은 49.8%였다.   
  
업계 관계자는 "지난해 국내 외국인 전용 카지노업계는 중국인 관광객 감소로 실적이 크게 악화했다"며 "중국 정부가 단체관광객의 한국관광 금지령을 전면적으로 풀지 않는 이상 올해에도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내다봤다.

2.[도박을 하기위해 치안이 위험한 나라(필리핀 등)로 가게됨](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2&aid=0002050848)

3.우리나라 내에서의 도박을 막더라도 다른길로 할 수 있다.

2018년 1월 3일자 뉴스

한국카지노업관광협회 관계자는 “마카오와 필리핀 및 베트남 등 동남아 카지노 업계는 파격적인 지원정책으로 카지노산업이 하루가 다르게 일취월장하고 있다”며 “그러나 대한민국은 매출촐량제 등 규제폭탄으로 갈수록 어려워지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서천범 한국레저산업연구소장은 “정부의 합법사행산업에 대한 과도한 규제는 불법 사행산업을 조정하는 모순을 초래하고 있다”며 “매출총량제의 경우 장기적으로 볼 때 득실을 면밀히 검토하고 추진해야 하는데 졸속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 “합법 사행산업을 규제하게 되면 그 고객들이 어느 곳으로 빠져나가는지 전혀 고민이 없는 것 같다”면서 “경제력이 있는 사람들은 원정도박에 나서고 일반 서민들은 온라인 등 불법 사행산업으로 빠져나가고 말 것”이라고 단언했다.

술

술을 마시는 속도가 빠른 A앞에는 술잔이없고, 술을 마시는 속도가 느린 B앞에는 술잔이 두개가 놓인 때가 많다.

A가 술을 빨리마시고 B의 술마시기를 기다리는 시점에서 A는 술을 마시지 않으므로 중간중간에 술을 깨게된다.

하지만 B는 쉬지않고 술을 연달아 마셔야하기때문에 B는 술에 깰 수 있는 간격이없다.

따라서 B가 더 빨리취함